

리얼이 수행일기 <下>



배광식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경조 보다는 경주로 하겠습니 다.”

당시는 무심히 넘겼었지만, 청화 큰스님께서서는 경주라는 불명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나를 호칭할 때 ‘배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절대로 별칭 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이후로 큰스님께서서는 ‘배 박사’라는 호칭 대신 ‘경주 거

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3년결사가 시작된 다음해에는 수행 보살과 나에게, <금륜회보>를 발간하도록 부탁하셨다. <금륜회보>는 큰스님을 정점으로 결성된 사부대중의 모임인 금륜회의 소식지로서, 창간호부터 계속 8면으로 내게 되었다. 큰스님의 육성 법문을 글로 정리한 것 말고, 큰스님께서 직접 글로 써주신 법문은 <금륜회보>에 처음 실리게 되었다. 1986년 5월호를 창간호로 매월 1회 발행된 회보의 편집은 수행 보살이 맡아서 했고, 인쇄된 회보를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는 등의 허드렛일은 내가 맡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후일 수행 보살이 금륜출판사를 등록하여 큰스님의 법어집인 <경통선의 향훈>을 내기도 하고, 작년 5월 도봉산 광운사 개원에

큰스님 원력따라 <금륜회보> 발간

포교 매진해 은혜 보답할 것 다짐

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곁에 계시던 금산 스님께 “주변사람들이 불명을 자꾸 불러주는 것이 좋으니, 스님께서도 이제는 경주 거사라고 불러 주십시오”라고 당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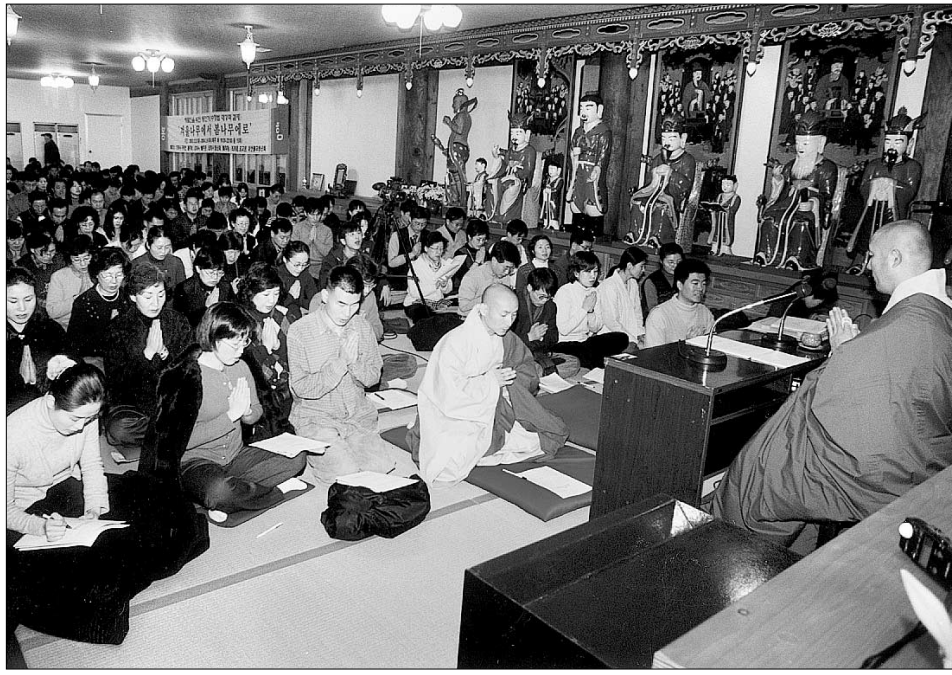
청화 큰스님께서서는 대안사와 성류사에서 매 언제 때마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용맹정진에서 “경주 거사도 법문을 해야합니다”하시고는 법문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격이 되고, 글 쓰듯이 하면 됩니다. 이름 받은 대로 해야지요”하시고는 대중들과 함께 자리하여 나의 모자란 이야기를 들곤 하셨다.

하루는 나를 불러, “중생을 교화하는데는 방편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시면서 다니구찌 마사하루의 <생명의 실상> 전집을 주셨다. “나도 출가하기 전에 속가에 있을 때는 ‘생명의 실상’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다니구찌 마사하루가 정진

맞춰 창간된 불교잡지인 <광륜>지의 편집도 수행 보살에게 맡기셨다.

“내가 없더라도 광륜지는 원통(圓通) 불법을 선양하고 한국의 불교를 올바르게 이끄는 불교지로 계속되어야 하고, 월간이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시던 때만 하여도, 큰스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좀 더 큰스님 뜻에 맞게 정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죄스러우므로 남는다.

급년 불 동안계 해제 후에 큰스님께서서는 겨우내 번역하신 육조단경 원고를 출판하도록 수행 보살에게 당부하셨다. 스승께서 이 세상 저 세상 상관 안하시고 홀홀히 떠나신 지금, 향사 수의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만큼이나 큰 은혜를 입은 나로서 은혜갚음이 실개천에도 미치지 못할을 부끄러워 하면서 불법홍포와 진리 탐구를 위해 위법망구할 것을 서원한다.



<계율수행법에 대한 혜능 스님의 법문에 앞서 ‘난우계’를 외우는 불자들.

戒는 어둠 밝히는 등불

“계(戒)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생사를 건너는 다리와 같으며 가늘은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화엄경)

12월 9일 저녁 7시30분, 조계사 극락전, 법당을 빼곡히 메운 200여 불자들이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주관하는 ‘수행법 대강좌 결계’의 두번째 강의를 듣기에 앞서 108배 정진에 여념이 없었다. 불자들의



혜능 스님의 계율 수행

온갖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지계의 강령

열반의 경지 드는 길도 계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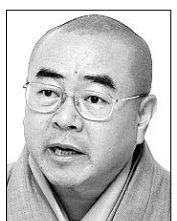
법가의 즐거움도 성취할 근거가 없다”면서 “불행에 어떠한 수행(行門)이나 깨달음이라도 계행이 주요 조건의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계사청년회 창립 2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계율관련 특강으로 기록된 이날 혜능 스님의 계율수행법을 요약 정리했다.

“온갖 욕망을 버리고 여의(離欲), 세간의 무익한 고행을 수용하지 않는 것(捨無益苦行)이 수행의 요체입니다.”

혜능 스님은 3시간 동안의 법문을 통해 “성인의 과위에 오르고 곧바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능 스님은 “계가 없으면 정(定)과 혜(慧)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탈의 즐거움도 성취할 근거가 없다”면서 “불행에 어떠한 수행(行門)이나 깨달음이라도 계행이 주요 조건의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문화연구원 임재어록 특강



어록 특강을 연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성본 스님이 중국 선종사를 배경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02)765-6539

지운스님 금강경 특강

불교TV에서 원각경 강의를 했던 지운 스님(전 송강사 강주)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불교TV 무상사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30분 금강경을 특강한다. 대웅전에는 물론 참선과 자비수관(慈悲手觀) 등 실참 지도와 결부시켜 해설한다. (02)3270-3492

경주 골굴사 선무도 화랑수련회

경주 골굴사는 12월부터 2월까지 1주, 2주, 한달 과정의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를 연다.

계 받은 후 공부 중요

▶계 받은 후 공부하는 계 중요

제가자의 계율수행은 수계(受戒)로부터 시작된다. 수계에 의해 청정한 계체(戒體)를 얻게 되면 제불보살과 호법선신이 응호하며, 나아가 도를 향해 더욱 정진하면 계정해의 세가지 무위학(無漏學)을 성취하게 된다. 계를 받으면 신심이 증가되고 공덕이 자라나며 역량이 배가된다. 인생이 평안해지며 구도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마음 속에 지혜가 자라나며 타인의 존중을 받고 권속이 화합하게 된다. 그리고 계를 받고 난 뒤엔 계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계본을 독송하는 것과 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계를 의우는 이유는 온갖 경우와 반연에 대한 지법개차(持犯開遮),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계라도 신중하게 지켜야

▶‘소유지족’이 지계의 원칙

계를 지키는 원칙은 소유지족(所欲知足)하는 것이다. 욕심이 적으면 고뇌가 적어지고, 만족함을 알면 항상 안락하다. “소유지족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유교경)고 했다. 오욕은 지옥의 다섯가지 뿌리이기 때문이다. 평소 계를 지키는 태도는 ‘가벼운 계(輕戒)’든 ‘무거운 계(重戒)’든 똑같이 지켜야 한다. 가벼운 계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지키면 중계는 절대로 범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계를 비방하거나 파계하는 사람을 보고 경만심을 내지 말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大悲憫心)을 내야 한다.

육근이 육경에 집착해선 안돼

▶지계수행시 유의할 점

지계수행에 있어 유의할 점은 우리의 육근(六根: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육경(六境: 6근의 인식대상인 色聲香味觸法)에 집착해 허망한 분별을 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된 것과는 사소한 일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계의 정신을 중도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 지법개차를 배워야 한다.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계를 지키는 상을 내거나 남을 마워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된다.

파계한 것 있으면 드러내 참회

▶참회와 가행정진

계를 받은 뒤부터 계법(戒法)의 어느 하나도 범한 적이 없는 것을 분래정진(분정)이라 하며, 수계 후에 회범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을 참회회복정진(참정)이라 한다. <열반경>에 “보살마하살은 과실이 있으면 즉시 스승이나 동학에게 참회하여 덮어두는 것이 없고, 감히 다시 짓지 않는다”고 했다. 수계자는 널리 육도만행을 닦으며 일체의 상(相)을 여의어야 한다. 생각생각에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원해야 한다.

상주불성지심 등 다섯가지 마음 갖기

▶다섯 가지 마음 갖기

보리심, 호순심, 자비심, 공경심, 진심(상주불성지심) 등 다섯가지 마음을 구족하게 되면, 계를 쉽게 범하지 않게 된다. 호순심은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다”는 <법광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을 어버이로 존중하는 것이다. 진심이란 일체중생이 모두 진여본성이 있고, 그들이 장애에 모두 성불하리라는 믿음이기에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다. 수련내용은 안반수의(호흡위주)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다. (054)744-1689

대흥사 겨울 참선수련회

해남 대흥사는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겨울 참선수련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는 유경현 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참선 정진을 실시한다. (061)535-5775

맑고향기롭게 선수련회

맑고향기롭게는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다

을날 3시까지 서울 김상사에서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묵언을 지키는 가운데 조석 예불, 108배, 8시간 동안의 좌선과 포행 등으로 진행된다. (02)741-4696

대구 법왕사 다라니 기도

대구 법왕사는 동짓날(12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 천수대다라니를 21편 독송하고 108배를 3회 올리는 다라니기도법회를 연다. (053)766-3747

*각 사찰이나 재가단체의 수행프로그램을 홍보하실 분들은 전화 (02-722-4162)나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 내용: 12경과 경근, 시명도인침요령, 장부의 해설중 판단, 황제내경장본,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속요법, 정공법, 종합침술
- ▶ 개강: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 강사: 침술속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 ▶ 내용: 시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공합, 작명법(실습위주)
- ▶ 개강: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 강사: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높이고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년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고품격의 집중력이 매우 정확한 명리학입니다

- ▶ 개강 일정: 2004. 1. 9 (09:00~12:00) 주 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 강사: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사암침술학회

장소: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011-307-2975, 02)2267-9136

지장보살의 인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세벽 맑은 공기가 청량해지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남이만 남다라 뜻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날 여승을 바깥을 잃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었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중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여성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명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00여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련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토구에 범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용인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움을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산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고된(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남다라, 남다라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평등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협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률,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건강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지름: 20~30cm
- 원산지: 태국
-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장기에 보관중
- 가격: 1개 35,000원
-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불자기업 향다운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